

산업현장에 **캐터필라**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최고가 됩니다.



www.haein.com

| 2004 | WINTER

# 혜인



  
주식회사 혜인  
www.haein.com

본사: (02)3498-4500 또는 전국 각 지점 / 고객센터 080-022-5775  
 천안고객지원센터 (041) 559-1500 평택창고 (031)667-2066/9 양산창고 (055)385-9668  
 서울영업본부 (02)3498-4541/8 경기북부영업소 (031)826-0966/8 영등포영업소 (02)2636-2891/3 남부영업소 (031)667-2062/3  
 부산영업본부 (051)517-7060 / 935-0500 전주영업소 (055)755-9669 포항영업소 (054)262-7551/2 인천지점 (032)761-0564/6  
 동해지점 (033)522-5211 광주지점 (062)526-3895/7 제천지점 (043)643-3307/644-3307 전주지점(063)245-1777/8 대구지점  
 (053)521-8072/5 대전지점 (042)531-6518/9



눈이 오면  
새하얀 눈이 오면  
시기와 질투를 덮자  
배신과 갈등을 덮자  
오기와 오만을 덮자  
미움과 배신을 덮자  
그렇게 덮어버리자  
그래서  
다 덮어버려서  
온 세상 하얗게 되면  
그리고 나서  
온 세상 깨끗해지면  
사랑을 그리자  
그 위에 사랑을 그리자  
깨끗해진 도화지 위에 사랑을 그리자  
치워지지 않을 사랑을 그리자  
녹지 않을 사랑을 그리자  
사랑을 그리자

글·사진 함영식



## Contents 2004 Winter

27> 26> 25> 24> 22> 20> 18> 16> 12> 08> 06> 04>

비즈니스 심리학

독자나눔터

포커스

헤인뉴스

협력사 탐방

특별한 인연

헤인속으로 | 최고의 장비

현장 리포트

소식통정보통 | 입계동향

맛있는 여정

브라운! 마이 라이프

세상돌보기

헤인



동국제강 포항제강소 내 동협현장에서 (주)동협 박세찬 사장(좌)과 (주)헤인 양성욱 대리(우)  
\* 표지 이야기는 p16-17에 실렸습니다.



# '공존'에는 뭔가 특별한 힘이 있다

IQ, EQ, CQ, PQ 등 그야말로 지수 홍수 시대다. 하지만 이런 많고 많은 지수 중 단연 주목받고 있는 것은 NQ. 오래 전부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막연한 공감대로 성립해있던 '사람이 재산이다'란 명언(?)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셈이다. 특히 한해를 돌아보는 이 즈음이면 사람이 얼마나 큰 가치와 무게중심을 갖는지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글 김광일(자유기고가) · 일러스트 이경국

\_\_\_\_\_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늘 지적능력을 높이기 위한 일을 강요받고, 또 그 일을 적절히 수행해내지 못할 경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다. 이런 IQ(Intelligence Quotient:지능지수)가 인생의 질을 좌우하는 시대를 살아야 하는 우리에게 한때 숨통을 틔워주듯 등장했던 개념이 바로 EQ(Emotion Quotient:감성지수)였다. 그러나 EQ 역시 IQ의 대안은 아닌, IQ를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결국 IQ만이 행복과 성공의 지름길이란 말인가.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아니다'. 21세기 사회에 다시금 주목받는 덕목이 등장하였으니 바로 NQ(Network Quotient:공존지수). NQ란 쉽게 설명하자면 '주변사람들과 공존하는 능력의 척도'다. 얼마나 대인관계(Network)를 잘 맺느냐의 문제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해졌다는 말이다.

## 21세기를 주도한다, NQ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는 여기서 말하는 '대인관계(Network)'를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인맥'이라면 결국 혈연, 지연, 학연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냐고.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대인관계(Network)'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님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뺨'과 '줄'로 버텼고, 지금도 '뺨'과 '줄'의 위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통하기 어렵게 된 것도 사실이다. '모교는 영원하다'고 외치던 동문들은 같은 학교에 다니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다. 고향만 같으면 호형호제하던 향우회도 갈수록 보기 힘들다. 예전 같으면 열일 제치고 도와주던 친척이나 동창생들은 모두 사라졌다. 오히려 인터넷 동호회 같은 기능집단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주시해야 한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연줄사회에서 네트워크 사회로 가는 시대의 전환점에 서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네트워크의 중심인 셈이다. 여기서 말하는 네트워크란 단순한 인맥이 아닌, 보다 대등하고 유연한 관계의 조직을 말한다. 자신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각자의 NQ, 즉 공존능력에 달려있다.



## 노력할수록 커지는 보람

각자의 공존능력을 진단하고, 공존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길만이 답이다. 우선 몇 가지 질문을 해보자. 첫째,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찾아뵙거나 연락을 드리고 있는가. 둘째, 학교 동창이나 직장 동료 외에 적어도 두 달에 한 번 이상 만나는 친구가 있는가. 셋째, 내가 위급할 때 가족을 부탁할 사람이 있는가. 넷째, 아무리 바빠도 상가(喪家)에는 빠지지 않고 가는 편인가. 다섯째, 나의 직장동료(부하, 상사)가 어떤 음식을 싫어하는지 알고 있는가. 여섯째,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일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가. 마지막으로, 스스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위의 7가지 문항 중 5번 이상 'YES'라는 대답을 했다면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공존능력을 갖추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반대로 5번 이상 'NO'라는 대답을 했다면 공존능력의 부재라고 봐야 할 것이다.

〈NQ로 살아가라〉의 저자인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김무곤 교수는 공존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방법들을 제시했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우습게 보지 말고 지위고하를 막론하여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것.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하다'라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할 것. 남을 도와줄 때는 화끈하게 도와주고 힘답이나 비판하지 말 것. 특히 조의금을 많이 낼 것. 회사 바깥사람들도 많이 사귀며 그렇다고 옛 친구들에게도 소홀하지 말 것. 회사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불필요한 논쟁을 삼갈 것.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좋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할 시간을 가질 것.

이 각박한 시대에는 사람만이 희망이며 재산이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나를 도와줄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내가 도와줬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굳이 출세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평소에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도 공존능력은 필요하다. IQ가 그 상품의 품질이라면 NQ는 그 상품의 가치인 것이다. 품질이 좋은 제품보다 명품이 인정받는 이유는 명품의 가치 때문이 아니던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야구선수, 최초의 여자야구단 감독 안향미

# Baseball Is My Life

글 · 사진 PAS(help@i-pas.net)

한국시리즈와 독일 월드컵 지역 예선이 끝나고 실내 스포츠인 농구만이 불꽃을 튀기고 있는 요즘, 겨울 추위에 이렇듯 하지 않고 야구 배트와 글러브를 끼고 그라운드에 나서는 여인들이 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야구단 '비밀리에', 그들을 이끄는 안향미 감독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야구선수로 알려져 있다.



\_\_\_\_\_ 1904년 기독교청년회(현 YMCA) 창립 공로자 가운데 한 명인 미국인 질레트가 청년 회원들에게 야구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한국야구의 첫 출발로 전해지고 있다. 영화 YMCA 야구단은 이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기도 하다. 그리고 100년 쯤 시간이 지난 2004년 3월, 야구는 남자들의 스포츠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자들을 모아 야구팀을 만든 이가 나타났다. 영화에서처럼 여자 야구의 100년 역사가 켜지는 첫 순간이라 할 수 있다. 최초의 여자야구팀의 이름인 '비밀리에', 'Baseball is my life'란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안향미 감독이 야구를 처음 시작한 것은 92년 겨울, 야구선수인 동생을 연습장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그만 야구에 빠져버렸다.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이었다. 지금 동생은 야구를 하지 않지만 누나는 그때보다 더 많이 야구를 사랑하게 되었다. 집안의 영향도 크다. 유도선수였던 안 감독의 부친은 자식들이 뛰든 운동 한 가지씩은 해야 한다는 주의였다. 체력이 서야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처음에는 건강을 위해 운동 삼아 시작했지만 그녀의 열정이 야구를 천직의 자리에 앉혔다. 국내 프로야구 입단 테스트에 수차례 떨어졌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일본의 프로여자야구팀인 드림윙스에 입단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야구를 하며 많은 걸 배웠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와 얘기를 나누던 중 여자야구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현지에서 동생과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 인터넷

에 홈페이지(baseball.gameone.co.kr/BIML)를 만든 뒤 선수를 모집했다.

“지난 7월에 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일본과의 시합이 가장 힘들었죠. 53점을 내주고서야 콜드게임패로 시합이 끝났는데 한 이닝이 얼마나 길던지요. 그때 정말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투수를 하던 언니가 손가락이 부러졌다. 여자야구는 두 명이 부상을 당하면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규칙이 있었다. 그 언니는 한사코 포지션을 바꿔서라도 끝까지 뛰겠노라고 했고, 안 감독은 경기가 끝나고 하염없이 울었다. 다들 열심히네 정작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것이다. 전패를 당하고 대회가 끝났지만 11월 21일에 있었던 일본 사회인 야구팀과의 경기에서는 14대 11로 승리를 했다. 처음 정기모임을 가질 때 두 명이었던 회원도 이제는 50명을 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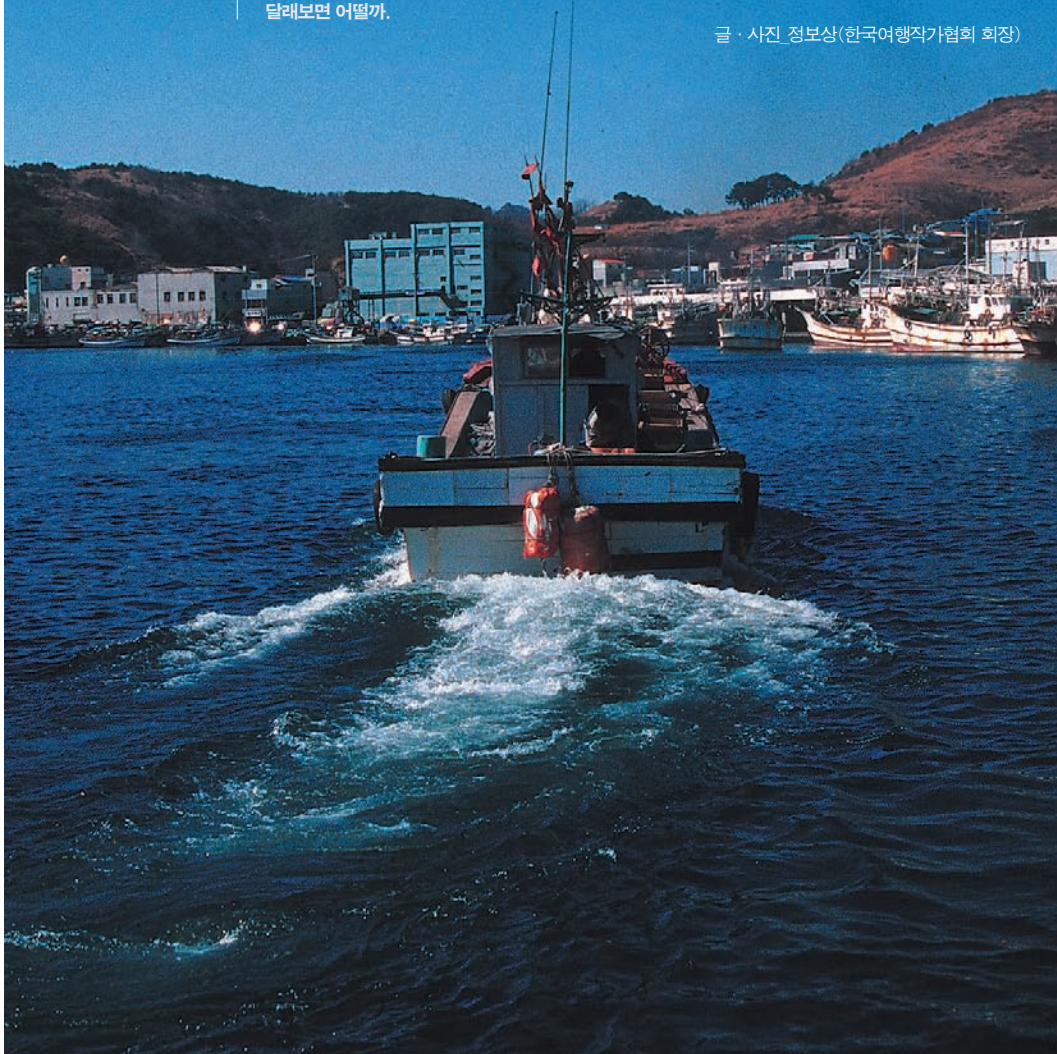
안 감독에게 따라붙는 수식어 중에 유독 '최초'라는 말이 많다. 99년 대통령배 고교야구 준결승전에서 덕수정보고 선수로 등판하면서 공식대회에 출전한 최초의 여자선수로 기록되었으며, 1946년 조직된 대한야구협회에 등록된 최초의 여자선수이고, 비밀리에로 인해 최초의 여자야구단 감독으로 기록되었다. 최초라는 기록을 연이어가고 있는 그녀가 바라는 또 하나의 최초는 월드시리즈 진출이다. 많이 깨지고, 쓰러지면서 더 단단해지는 법을 배운 그녀의 꿈이 월드시리즈 무대에 당당히 서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 겨울바람에 과메기 구수하게 농익어간다

가는 해도 아쉬운데 하루 해마져 일찍 저무니 허전할만 시나브로 더해가는 시절이다. 그래서인지 몸과 마음 두루 텅 빈 듯하여 자꾸만 무엇으로든 채우고픈 욕심이 앞선다. 이럴 때일수록 버림의 여유를 가져야 하는 법.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자연의 교훈에 마음 채우고, 영양 많고 구수한 진미로 공허한 몸 달래보면 어떨까.

글 · 사진 정보상(한국여행작가협회 회장)



\_\_\_\_\_ 포항에서 한반도의 동남쪽 끝자락을 타고 내려가는 7번 국도를 시원스레 달리는 것도 잠깐, 구룡포를 거쳐 호미곶으로 가는 길을 알리는 이정표가 발길을 잡아끈다. 이곳에서 영일만의 호미곶으로 이어지는 해안선 드라이브 길을 달리다보면 절경들이 계속 이어진다. 다정한 모습의 작은 포구들, 특 트인 바닷가, 바다낚시에 여념이 없는 태공들의 모습 등 어느 것 하나 정겹지 않은 것이 없다.

바다에서 아홉 마리 용이 승천하였다고 해서 붙여진 구룡포는 포항 방면에서 오가는 버스가 많아 사람들의 왕래가 잦고 그만큼 포구도 활기가 넘친다. 겨울이 오면 '과메기축제' 다 '해맞이축제' 다 해서 들뜬 분위기가 선창을 가득 메운다. 특히 이즈음 구룡포 항을 찾으면 이곳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과메기의 제 맛을 즐길 수 있다.

## 눈을 꿰어 꾸덕꾸덕 말린 겨울 별미

과메기는 원래 영일만이나 영덕 앞바다에서 잡은 청어를 겨울바람에 말린 것으로 꿰치나 청어 등 등푸른 생선의 눈(目)을 꿰어(貫) 말리던 이 지역 특유의 건조방법을 일컫는 '관목'에서 유래된 것이다. '눈을 꿰 고기'라는 뜻으로 '관목'이라 불렀던 것이 '과메기'로 변했다. 처음에는 영일만 일대에서 많이 잡히던 청어가 대표적인 과메기였지만 요즘은 잘 잡히지 않는데다가 건조 기간마저 오래 걸려 지금은 대부분 꿰치로 과메기를 만들고 있다.

과메기를 만드는 방법은 조선시대 문헌에 두루 등장하니 수 백 년 이상 이어져온 비법인 셈이다. 예전에는 싸리나무에 꿰치의 눈을 꿰 뒤 처마 밑에 매달아 군불 연기에 그을려가며 건조시켰지만 지금은 과메기 덕장을 만들고 꿰치나 청어의 배 부분을 짚으로 엮은 뒤 나무기둥에 널어 건조시킨다. 기름이 많아 쉽게 상하기 쉬운 꿰치나 청어 등 등푸른 생선으로 만드는 과메기는 바람, 온도, 습도의 삼박

자가 잘 맞아야 제 맛을 내는데 구룡포 과메기가 바로 이런 조건을 지니고 있다. 구룡포의 건조하고 차가운 겨울 날씨가 비린내 없고 쫄깃쫄깃하면서 구수한 맛을 내는 과메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구룡포 사람들은 찬바람이 불면 집 앞 바닷가에 덕장을 만들어 잘 씻은 꿰치를 말리기 시작한다. 보통 보름 이상 바닷바람 속에서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게 되면 뱃살에 붙린 기름이 살 전체에 고루 퍼지면서 숙성되어 간다. 이렇게 잘 익은 과메기는 약간 말랑말랑하면서도 쫄깃한 육질이 특성이다.

동해 해풍을 가득 담고 있는 과메기는 크게 두 가지 모양이 있다. 배를 따서 뼈만 발라 낸 뒤 숙성시킨 '배진 것'과 통째로 짚으로 엮어 숙성시킨 '엮걸이'가 있다. 이는 영일만 일대에서 과메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다. 배진 것은 35cm 이상의 큰 꿰치로, 엮걸이는 그보다 작은 것이 사용되고 숙성기간도 다르다. 배진 것은 보통 3~4일, 엮걸이는 12일에서 보름 정도 걸린다. 엮걸이는 날이 춥거나 바람이 많이 불면 건조기간이 5일 가량 짧아지기도 한다. 또 배진 것은 9월부터 11월 사이에 잡은 가을꿰치가 주로 쓰이는데 영하 40도로 냉동된 것을 꺼내어 숙성시킨다. 내장이 들어 있는 상태에서 말리는 엮걸이는 날씨가 포근하면 마르기도 전해 상해버리므로 찬바람이 부는 12월이 되어야 시장에 출하된다.

포항 죽도시장에 가면 질 좋은 과메기를 구할 수 있다





## 맛에 반하고 영양에 빛난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야만 맛볼 수 있는 과메기는 영양이 풍부하고 몸에 여러 가지로 이롭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과메기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등푸른 생선인 꽁치에는 고도불포화지방인 EPA와 DHA가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런 성분은 혈압저하 및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용과 심근경색 및 뇌근색 방지 작용이 있어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꽁치를 과메기로 만드는 과정에서 DHA 함량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숙취해독에 효험이 있는 아스파라긴산, 필수아미노산의 일종인 트레오닌과 리진, 성장기 어린이에게 필수적인 알기닌과 메치오닌도 다른 식품에 비해 풍부하다.

특별한 조리법이 필요 없는 과메기는 먹이에도 간편하다. 배진 것은 껍질만 벗겨내고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된다. 김이나 배추쌈에 고추와 마늘을 곁들여 싸 먹어도 좋고 마늘꽂이를 곁들여 물미역에 싸 먹어도 맛있다. 배진 것에 비해 깊은 맛을 지니고 있는 위겔이는 먹는 과정이 조금 복잡하다. 가위로 배를 따 내장을 꺼내고 등지느러미를 자른 뒤 절반으로 갈라 뼈를 발라내고 껍질을 벗겨 먹는 것이 조금 번거롭다.

보통 과메기를 파는 곳에서 숙배추나 물미역 등 쌈거리와 초고추장을 함께 팔기 때문에 함께 구입해 양지바른 선착장 같은 곳에서 둘러 앉아 먹는 것도 별미다. 과메기 요리 전문 식당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이런 이유다. 식사를 위해 들른 손님들을 위해 식당에서 결다리 메뉴로 판매하는 것이 보통인데 요즘에는 과메기 인기가 높아지자 과메기 전문식당이라는 이름을 내걸기도 한다. 과메기를 구입해 와서 며칠을 두고 먹을 때에는 깨끗한 종이에 싸서 랩으로 밀봉한 후 영하 2도 정도의 냉장실에 보관했다가 먹는 것이 좋다. 먹을 때는 냉장고에서 꺼내 30분 정도



▲ 배를 따서 뼈만 발라낸 뒤 숙성시킨 '배진 것'

▼ 통째로 쪄서 얹어 숙성시킨 '위겔이'

가다린 다음 먹는 것이 참맛을 즐기는 방법이다.

구룡포의 명물 가운데 또 하나는 고래고기. 고래포획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구룡포 앞바다에서는 고기잡이 그물에 고래가 자주 걸려들어 해마다 100여 마리 넘게 잡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문에 포구에는 울산의 장생포처럼 고래고기를 파는 식당들이 이어져 있다.

## 해를 따라 배들의 해가 되어주는 등대 바다, 호미곶

과메기의 참맛으로 나들이길이 든든해졌다면 호



▲ 상생의 손 위로 떠오르는 동해의 일출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된 호미곶 등대

미곶(虎尾串)을 꼭 한 번 둘러 보자. 원래는 장기곶이었지만 2001년 말 국립지리원 중앙지명위원회가 호미곶으로 바뀌었다는 포항시의 신청을 받아들여 장기곶은 사라지고 호미곶이 정식 지명으로 등록되었다. 호미곶이 있는 대포마을은 한반도 지도를 호랑이로 봤을 때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육지에서 일출을 가장 먼저 볼 수 있어 새해 첫날이면 해돋이를 보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해양수산부가 선정한 '2004년 12월의 어촌'에 뽑히기도 했다.

영일만 나들이의 1번지 격인 호미곶에는 우리나

라에서 가장 큰 등대이며 동양에서도 두 번째 크기인 호미곶 등대가 있다. 호랑이 꼬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호미등(虎尾燈)이라고도 불리는 이 등대는 높이가 26.4m로 조선 광무 7년인 1903년에 세워졌다. 철근을 사용하지 않고 밑둘레 24m, 윗둘레 17m를 벽돌로만 쌓았고 내부는 6층 규모이다. 호미곶 등대는 그 규모가 전국 최대, 최고의 등대로 알려져 있으며 등대 옆에는 우리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등대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어 각종 등대에 관한 기기 및 자료를 전시하고 있다.

등대박물관에 전시된 각종 등대용 기구들을 구경하고 나오면 넘실대는 동해 바다의 물결이 눈앞에서 부서지며 절경을 펼쳐놓는다. 유난히 파도가 거친 날이면 바다 가까이 내려가서 파도가 바위에 부서지는 장쾌한 광경을 즐기는 즐거움도 있다.

뿐만 아니라 호미곶의 해맞이 공원은 주말이면 전국 각지에서 일출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공원의 중앙과 공원이 마주 보이는 바닷가에 청동조형물로 설치되어 있는 '상생의 손'은 해맞이 공원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자리 잡았다. 영남대 김승국 교수의 작품으로 2000년 1월 1일 한민족 해맞이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이 조형물에는 '상생의 손'이라는 작품명에서도 알 수 있듯 새 것과 현 것, 과거와 미래, 묵은 삶을 거울삼아 이타적인 발상으로 새로운 삶을 영위하자는 뜻이 담겨 있다. 공원 내에는 '상생의 손'과 일맥상통하는 연오랑, 세오녀의 설화를 상징화한 조형물도 마련되어 있다.

또한 해맞이광장에서 600m 가량 떨어진 곳에는 대보해수탕이 있어 여행자들의 피로를 풀어준다. 이 해수탕의 물은 피부질환, 관절염, 비만증, 교통사고 후유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니, 먹고 즐기고 푸는 모든 건강 여행의 묘미가 이 호미곶 안에 있는 셈이다.

# 짹짹한 연말 보너스, 연말 정산



이것저것 마무리하고 반성해야 할 일들로 분주한 연말. 연간 소득과 소비를 정리해, 얼마나 알뜰히 살았는지도 이즈음이면 돌아볼 부분이다. 이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연말정산. 꼼꼼히 따져 제대로만 챙긴다면 연말 보너스가 따로 없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고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것저것 꼼꼼히 따져 이번 연말에는 두둑한 연말 보너스를 챙겨보자.

글\_ 이현상 기자(중앙일보 산업부)

\_\_\_\_\_ 해마다 연말이면 직장인들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 연말정산이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규정도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부분도 많아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직장인들로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만큼 귀찮더라도 꼼꼼하게 따져 준비하지 않으면 손해다.

## 바로 알아!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왜 하는 것일까. 직장인들은 매달 받는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이는 잠정적인

뿐이다. 정확한 세금은 그 해의 소득이 확정되는 연말에 결정될 수밖에 없다. 매달 잠정적으로 떼 세금과 정확한 세금을 비교해 더 낼 건 더 내고, 돌려받을 건 돌려받는 것이 바로 연말정산이다.

같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세금은 사람마다 다르다. 바로 '공제' 때문이다. '공제'란 소득에서 생활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빼주어 과세 기준을 낮춰주는 것이다. 이런 경비는 가족부양비, 교육비, 보험금, 의료비 등 여러 가지가 있다. 결국 근로자들로서는 어떤 항목이 공제 되는지, 그리고 공제액의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안 내도 될 세금을 공연히 더 내거나, 반대로 내야 할 세금을 안 내서 '탈세자'로 몰리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근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를 예로 들어보자. 같이 살지 않는 장인·장모는 부양가족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아는 직장인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모시지 않을 경우엔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들을 부양가족으로 모시면 인적 공제는 물론 이들의 의료비 등도 공제 대상이 된다. 또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지레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규정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근로자의 경우 한해 총 급여가 700만 원일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00만 원이 된다. 즉, 배우자의 총 급여가 700만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 연말정산, 하우 투

연말정산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연말정산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그림1). ① 총 급여액 산정 → 근로소득 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산정 → ③ 각종 소득공제 → ④ 과세표준 결정 → 기본세율 산정 → ⑤ 산출세액 결정 → ⑥ 세액공제 및 감면 → 결정세액 통보.

여기에서 총급여액이란 근로자 개개인이 받는 급여로 연말정산의 기초 자료다. 월급뿐만 아니라 각종 상여금 등을 합한 뒤 비과세 소득(출산·보육수당 등)을 뺀 것이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으로 근로자가 일하는 데에 반드시 써야 할 경비(교통비 등)를 고려해 이를 빼주는 것이다. 개별 근로자들이 일일이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청이 일률적인 기준을 만들어 공제해 준다.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사

람은 받은 급여액 전부를 필요경비 성격으로 인정받아 전액 공제를 받는다.

다음으로 각종 소득공제란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한다. 이런 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으로 나뉜다. 인적공제는 사람 수에 따른 공제로, 부양가족이 많거나 노부모를 모시거나 장애인을 부양할 때 혜택이 많다. 특별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을 말한다. 연금보험료는 쉽게 말해 국민연금을 말하고, 기타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이나 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을 계산해 소득에서 빼주는 것이다. 과세 표준은 근로소득자의 총

그림1 연말정산 흐름도

### ● 총급여(근로소득 - 비과세)

(-) 근로소득 공제

### ● 근로소득 금액

(-) 인적공제 -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6세 이하)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 특별공제 -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주택자금 공제  
기부금 공제

(-) 연금 보험료 공제 - 국민 연금 납부액

(-) 기타소득 공제 - 개인연금저축 공제  
연금저축 공제  
투자조합출자 공제  
신용카드 사용 공제

### ● 과세 표준 (×) 기본 세율

### ● 산출 세액

(-) 세액공제 및 감면 - 근로소득세액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세액  
외국납부 세액

### ● 결정 세액

● 환급 또는 추가납부 ... 기납부 세액과의 차액을 1월 급여에 반영



급여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 금액 규모에 따라 정부는 9~36%까지 세율(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매긴다(산출세액). 따라서 소득이 많아질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커진다.

하지만 산출세액이 나왔다고 해서 이 금액이 곧 바로 내야 할 세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다시 추가로 빼준다. 소득이 아니라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다.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하일 때는 55%를 감해주고, 50만 원이 넘을 경우엔 27만 5000원+50만 원 초과금액의 30%를 제해준다. 단 이렇게 깎아주는 한도는 59만 원이다. 산출세액이 125만 원 이상일 경우 50만 원은 기본적으로 깎아준다고 생각하면 된다(여기에 무주택 세대주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서울 이외 지역의 미분양 국민주택을 분양받았을 경우엔 이자상환액의 30%를 다시 감해준다).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금액(결정세액)이 세액이다. 월급을 받으면서 이보다 많은 세금을 이미 냈다면 돌려받고, 덜 냈다면 더 내야 한다(환급 또는 추가 납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계산해 보면 (그림2)와 같다. 30대 직장인 홍길동(가명) 씨의 경우다. 그림을 따라 계산하면 계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공제항목과 규정, 한도, 계산방법, 조건 등은 지면 제약상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있는 연말정산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구체적인 사례가 많아 거의 책 한 권 분량이지만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우를 거의 다 상정해 질문일답식으로 풀어놓았다. 혼자서 연말정산을 하기 어렵다면 국세청이나 한국납세자연맹(koreatax.org)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계산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림2 30대 직장 홍길동 씨 연말정산 사례

1. 가족사항: 아내(무소득), 아들(중학생), 부친(72세), 모친(66세)
2. 총급여: 3,700만 원(월급, 상여, 연월차, 월 10만 원 이상의 식대 등)
3.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60만 원, 보장성 보험 110만 원
4. 의료비: 본인(270만 원) + 가족 (350만 원) = 620만 원
5. 학비: 100만 원(중학생 아들의 등록금)
6. 주택의연금: 50만 원
7. 국민연금보험료: 150만 원
8. 주택자금: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 100만 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 원
9. 연금저축: 40만 원
10. 신용카드(현금서비스 제외): 1,110만 원
11. 기납부세액: 60만 원(매달 5만 원씩 납부)

#### ● 총급여: 3,700만원

(-) 근로소득 공제: 1,295만 원(소득 3,000만 원 초과~4,500만 원 이하 경우 1,225만 원+3,000만 원 초과액의 10%의 근로소득공제 산식 적용)

#### ● 근로소득 금액: 2,405만 원(3,700만 원 - 1,295만 원)

- (-) 인적공제: 750만 원  
- 기본공제 500만 원: 본인과 가족 1인당 100만 원  
- 추가공제 250만 원: 70세 이상 경로우대자 150만 원 + 65세 이상 100만 원
- (-) 특별공제: 959만 원  
- 보험료 공제 16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전액공제) 60만 원 + 보장성보험료(한도 100만 원)  
- 의료비 공제 509만 원(620만 원-총급여의 3%(111만 원))  
- 교육비 공제 100만 원  
- 주택자금 공제 140만 원(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100만 원)의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100만 원)  
- 기부금 공제 50만 원(주택의연금)  
(-) 연금 보험료 공제: 150만 원(국민연금보험료)  
(-) 기타소득 공제: 188만 원  
- 연금저축 공제 40만 원  
- 신용카드사용 공제 148만 원((1,110만 원-총급여의 10%인 370만 원)×20%)

#### ● 과세표준: 358만 원(총급여-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특별공제-연금보험료공제-기타소득공제)

#### ● 산출세액: 32만2천200원(과표×9%)

#### ● 결정세액: 14만4천990원 (산출세액의 55%인 17만 7천 210원을 세액공제)

#### ● 환급액: 45만5천10원(기납부세액 60만 원-결정세액 14만4천990원, 1월 급여에 반영)



#### 2004년 이렇게 달라졌다

한편, 국세청은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조금씩이나마 근로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소득공제 내용을 확대하고, 세액공제율도 높이고 있다. 물론 아무리 줄여줘도 낼 때마다 아까운 것이 세금이지만, 올해 달라진 연말 정산 규정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조금이나마 절세할 수 있는 구석이 있을 수 있다.

우선 자녀 양육비 공제가 확대된다. 6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직장인은 올해부터 기본공제 1명당 100만 원뿐 아니라, 1명당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된다. 의료비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지만, 본인 의료비에 한해서는 올해부터 전액 공제된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폭도 확대되었다.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자를 부양하는 직장인은 기본공제(1명당 100만 원)에 더해 경로우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경로우대자 1명당 추가공제 금액이 100만 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70세 이상의 경우 150만 원, 65세 이상~70

세 미만은 100만 원으로 바뀌었다. 교육비 공제도 확대된다. 유치원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는 1명당 연간 150만 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됐으나, 올해부터는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또 대학생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독학사학위 취득과 학점은행제 과정에 필요한 비용도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됐다. 부양가족 대상도 조정되어서 올해부터는 직계존속 기본공제 대상자에 계부(60세 이상)와 계모(55세 이상)도 포함해 1명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해준다.

또 올해부터는 과세연도 중간에 혼인한 자녀나 이혼한 배우자를 위해 쓴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도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 지급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는다. 결혼, 장례비는 100만 원씩 공제받는다. 연간 급여가 2500만 원 이하인 직장인은 결혼과 이사, 장례비를 각각 100만 원씩 소득공제 받는다. 만약 결혼과 함께 이사를 했다면 모두 2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모기지론 이자공제 한도도 확대되어서 모기지론을 이용해 상환기간 15년 이상, 거주기간 3년 이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해 연간 1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실제 내지 않은 의료비나 기부금 등 가짜 영수증을 제출해 세금을 돌려받으면 가산세를 무는 것은 물론 차질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은 연초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컴퓨터를 돌려 부정 신고를 색출한다. 웬만한 부정은 다 잡아낼 수 있다고 한다. 적발이 되면 직장에서 징계를 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흔히 자주 저지르는 부당 행위 사례는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경우, 부양하지 않은 부모를 부양한 것처럼 한 경우, 가짜 영수증을 이용한 공제, 기부금 조작 등이다.



# 전문장비와 전문업체의 환상적인 만남, (주)동협

철강업계 최고 호황기라는 울 2004년, 철강업계와 필수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고철 처리 및 슬래그 처리 업체 또한 그 어느 해보다 바쁜 한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한 치의 업무 오차 없이, 막대한 용량의 작업을 소화해 예년과 다른없는 순탄한 운영을 해오기란 말처럼 쉽지는 않았을 터. (주)동협과 헤인의 만남에 그 해답이 있다.

글\_ 임춘재 · 사진\_ 이승혁

## (주)동협의 남다른 경쟁력, 345BL MH

1973년 이래 우리나라 경제의 핵이자 철강산업의 중추로 자리 잡아 이제는 세계적인 철강도시로 입지를 다진 포항은 '품격현상'이라는 말이 돌 만큼 최대 호황기를 맞아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해를 보내고 있다. 그만큼, 철강업이 실이라면 그 비늘이라 할 수 있는 슬래그와 고철 처리업체 또한 자연히 풀가동 상태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보내고 있을 터. 포스코, INI스틸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철강업체로 꼽히는 동국제강의 협력사인 (주)동협도 늘어난 처리량을 소화해내기 위해 더없이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다. (주)동협 박세찬 사장에게 울 한해는 그래서 더욱 남다른 의미가 있다.

“요즘 12년 만에 교체한 345BL MH의 진가를 제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235C MH로도 순탄하게 운행해왔지만, 요즘처럼 처리 용량이 많아졌는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예년과 다른없는 사이클로 가동할 수 있다는 건 모두 향상된 345BL MH 성능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철강업계가 호경기로 돌아서고 캐터필라 장비에 대한 수요가 폭주하면서 생산량이 주문량을 따라잡지 못하게 되자, 자연 납기 기일도



(주)동협 박세찬 사장(좌)과 (주)헤인 양성욱 대리

늦어져, 345BL MH를 신청하고 꼬박 8개월을 기다렸다는 박 사장. 울 8월 드디어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서 고대했던 만큼 기대 이상의 성능이었기에 그간의 섭섭함이나 애로사항 등은 쉽게 사그라졌다. 그리고 새삼 (주)동협의 전 제품을 캐터필라 화하겠다는 계획에 더 큰 힘이 실렸다고 한다.

## 내구성에서도, 생산성에서도 단연 캐터필라

(주)동협 박세찬 사장이 헤인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의 일이다. 철강업계에서 15년 정도, 나름대로 입지를 굳혀오면서 박 사장은 큰 성능차도 없고 가격 면에서 오히려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해 국산장비를 고집해 왔다. 그러던 중 2002년 원청업체였던 동국제강이 중고장비를 인수해 주면서 캐터필라와 첫 만남을 가졌다. 그것이 머티리얼 핸들러 235C MH. 캐터필라를 사용해 본 박 사장은 국산장비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캐터필라 장비의 성능에 대해 확신을 얻었다.

“고철 처리업무의 관건은 내구성과 생산성에 있습니다. 현장이 분진이나 열 등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어 장비 계통에는 치명적이죠. 내구성도 강해야 하고 잔고장도 없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쪽 업무라는 게 아주 특수한 상황이어서, 기계 한 대가 한 시간이라도 돌지 않는다면 바로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장비라기보다는 생산설비라는 개념에서 생산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특수장비는 캐터필라 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비교가 안 되죠.”

235C MH 역시 13년째 쓰면서 아직 전혀 이상이 없던 터라 새 모델 345BL MH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은 기우였다. 235C MH에서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성능과 국내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장비라는 점에서 345BL MH에 대한 박 사장의 자부심은 자연 최고가 될 수밖에 없었다.

특히 345BL MH는 구 장비에 비해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되어 여러모로 이득이었다. 장비 작업 사이클 타임이 빨라져 더 많은 물량을 소화해 낼 수 있고, 산적 높이도 최대 14m나 되어 업무도 한층 효율적이 되었으며, 직접 작업하는 운전자는 작업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로워졌다는 게 우선 손에 꼽히는 장점이다. 현재 하루 하역량은 23톤 트



성능과 효율면에서 월등히 업그레이드 된 345BL MH의 웅장함

럭 150대 물량. 235C MH에 비해 20% 정도 향상된 능률이다.

## 특수한 환경에 꼭 맞춘 특수장비

“사장님은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로 업무 추진력도 강하고 배포도 크신 분이죠. 또 어떤 일에서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셔서 모든 측면을 꼼꼼히 고려해 보세요. 고가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박 사장님 같은 분이 캐터필라를 선택해주셨다는 것은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포항영업소 양성욱 대리의 말이다. 위낙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이어간다는 박 사장은 오히려 헤인이 최고의 성능에, 꼼꼼하고 신속한 AS, 사람 좋기로 유명하다고 칭찬한다.

어려울 때 사람의 진가를 알 듯, 특수한 환경에선 믿음의 진가가 더욱 발휘되기 마련. 철강업이라는 특수 환경에서 빛나는 특수장비를 통해 헤인의 우수함은 더 큰 기대와 믿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향후 5년간 무리 없이 이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철강업계의 역동적인 현장에서 그 중심축으로 헤인은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CAT 산업장비영업팀 수도권 강한승 과장 02-3498-46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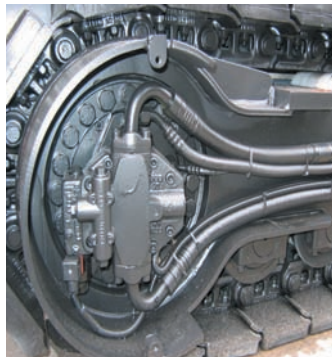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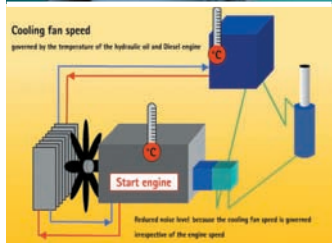
호남권 조정근 과장 062-945-5811

영남권 하명봉 사원 051-955-1234



# 정상에 우뚝 선 Ingersoll-Rand ABG 'TITAN 326 아스팔트 피니셔'

1945년 설립 이후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아스팔트 피니셔를 판매하고 있는 Ingersoll-Rand ABG사는 롤러와 같은 도로포장 장비만을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다. 올해 초 지난 5년 넘게 시장을 석권해온 'TITAN 325 EPM' 을 대신하여 새모델 'TITAN 326' 을 선보였다. 이제 고객이 더 잘 알고 있는 'TITAN 326' 의 뛰어난 장비성능과 포장성능, 그리고 무엇이 국내 최고의 장비로 만들었는지 알아보았다.



## (1) 엔진

뛰어난 BF 1013 EC 도이치 엔진은 엄격한 미국과 유럽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다른 장비에서 찾아 볼 수 없는 215마력의 폭발적인 힘을 갖춰 최대 10m의 포장폭도 거뜬히 해결한다.

## (2) 지능형 냉각시스템

더욱 커진 라디에이터의 크기는 장비의 과열 예방뿐만 아니라 장시간 연속 사용 시에도 안정적인 운행을 보장하고, 부속품의 열에 의한 변형을 방지하여 긴 수명이 가능하게 한다. 또한 지능형 냉각 시스템을 채택하여 냉각 팬이 엔진의 회전속도와 상관없이 냉각시킬 오일의 온도에 따라 스스로 판단하여 냉각 시스템이 구동되므로 출력 손실을 미연에 예방하면서 팬이 작동되므로 장비의 소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 (3) 트랙 텐션 조절 장치와 직접 구동방식의 주행 시스템

접이식 시트와 조절식 운전대는 운전자에게 최적의 운전실 환경을 제공하며, 대형 LCD 계기판을 통하여 작업자에게 구동 바퀴의 위치, 현재의 인상 높이, 배터리 용량, 주행속도 및 고장 지시용 문자 등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제공한다.

## (4) 유압 필터 시스템

리턴 필터의 채택은 간결하고 안전이 강화된 완벽한 유압 필터 시스템을 의미한다. 미세한 불순물로 허용하지 않는 TITAN 326 유압 시



스템은 유압 오일이 유압 탱크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주어 유압탱크 속과 유압 라인 모든 곳이 순수한 유압오일로 순환되어 유압시스템을 보호하고 불순물로 야기되는 유지 보수 비용을 확실히 줄여준다.

이러한 성능 개선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반영구적인 PVC 썬루프 지붕과 사이드 커튼, 유압식 킥커플링 시스템, 그리고 보다 넓은 시야를 위한 확장형 운전석 등 장비 곳곳에 고객을 위한 섬세한 노력을 엿볼 수 있다.



## 타이탄 326 EPM 제원표

엔진(디젤)	제조사	도이치	
	모델	BF6M 1013 EC	
	출력(@2200rpm)	Kw / HP	160 / 218
냉각방식	연료탱크 용량	Liter	300
	포장	포설능력	t/h
		최대 두께	mm
속력	호퍼 용량	t	13.5
	포장시	m/min	16
	이동시	Km/h	3.6
포장폭	최소	m	2.5
	최대	m	10
제원	폭	mm	2500
	길이	mm	6250
	높이	mm	2940
무게B	본체(스크리드 제외)	Kg	14,600



# 실력으로 맺은 필연, 부흥건설

경기 불황을 타고 '어렵다'는 공통 과제 아래 내부규모를 줄이는 등 여기저기 위축되는 움직임들이 즐비하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전성기'를 예고하고 있는 업체가 있으니 바로 부흥건설. 한결같은 초심 아래 자체 장비와 인력을 완벽히 구비하고, 이를 그대로 성장가도에 들어선 부흥건설을 찾았다.

글\_임춘재 · 사진\_이승혁

## 이유 있는 이례적인 성장

도로공사와 주차장, 상가단지나 아파트 등의 아스콘 포장을 전담하는 부흥건설은 이 업계에서 이례적으로 성장한 업체 가운데 하나다. 설립한 지는 8년, 법인으로 전환하고는 겨우 3년이 조금 넘었다. 대명콘도 군도선 포장과 아산병원 주차장, 설악콘도 등이 대표적인 실적물로 우리나라 전 지역을 아우른다. 이 짧은 기간에 이런 굵직한 공사를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부흥건설 조진용 사장의 말을 빌리자면 장비와 인력이 일체된 효율성을 첫째로 들 수 있다. 현재 부흥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 피니셔 3대를 포함하여 3세트이며, 모두 헤인 제품이다. 2000년 콤파로울러 CR36을 구입하고, 2001년에는 아스팔트 피니셔 TITAN 325를, 2002년 아스팔트 피니셔 TITAN 125와 2004년에 TITAN 326을 구입함으로써 현재의 설비를 모두 갖췄다.

게다가 이 모든 장비가 중고도 아닌 새 장비이고, 이 장비를 운전하는 인력도 모두 내부에서 소화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탄탄함이 한눈에 들어온다. 섬세하게 처리되는 만큼 장비로 인해 혹은 사람으로



부흥건설의 상송세를 이어줄 기대주, TITAN 326

일해 일어날 수 있는 착오는 부흥건설 역사상 단 한 건도 없었다.

## 실력으로 맺어 더 두터운 인연

부흥건설 조진용 사장이 헤인을 처음 만난 것은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 장비를 새 장비로 교체하면서였다. 누가 소개를 해준 것도 아니고, 헤인에 특별한 인연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악히 들었던 TITAN의 명성이 전부였다. 단지 이미지와 성능만으로 맺은 인연이라고 하니, 그 어떤 미사여구보다 값진 칭찬으로 여겨진다.

“쓰던 장비들의 AS에 문제가 생겨 새 장비를 구



이보다 더 탄탄할 수 없는 그들의 믿음 안에 헤인이 있다. (주)헤인 이은구 과장(좌)과 부흥건설 조진용 사장(우)

입해야겠다 싶었어요. TITAN에 대한 우수성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브랜드들과 꼼꼼히 비교해 봤습니다. 가격이 비싸도 제값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빗나가지 않았죠. TITAN을 구입한 후 장비에 문제가 있거나 그로 인해 일에 지장을 받은 일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드는 건 헤인의 AS예요. 어찌나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해주는지, 장비도 사람도 모두 100% 만족입니다.”

매사 일처리에 꼼꼼하고 정확한 조 사장은 실제 장비 구입 시 직접 타사 브랜드의 같은 제품을 일일이 비교해 보았단다. 그런 노력 끝에 잔고장 없고 사후처리가 깔끔하다는 결론으로 헤인을 선택했고, 그때부터 줄곧 TITAN 마니아를 자칭한다. 마침 이런 이미지들이 '마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 지역을 아우르며 깔끔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진행한다'는 부흥건설의 사업 방향과도 잘 맞아떨어져 헤인에 대한 믿음은 더욱 앞설 수밖에 없었다.

“TITAN이 워낙 고가라는 인식이 있어서 대부분 장비를 구입할 때 많이들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조 사장님은 한 번에 결정을 내리셨죠. 여러 곳을 관리하고 있지만 부흥건설 같은 곳은 없습니다. 말

씀드리면 믿어주시고 결정도 빨리 내려주시고요. 오히려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부흥건설에 처음 TITAN을 소개했고, 그 후로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주)헤인 이은구 과장의 말처럼 헤인과 부흥건설의 인연은 이야기 그대로 오로지 실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더욱 믿음직스럽다.

뚜렷이 목표한 바는 없지만, 하루하루 충실히 살아 이 업계에서 대한민국 최고를 꿈꾼다는 부흥건설. 때문에 벌써 성공을 운운하는 주변의 칭찬보다 훗날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김진희 실장은 말한다.

그 바람이 낫설지 않은 건 경기불황으로 침체된 분위기에 부흥건설이 모처럼의 활기를 불어넣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업계 최고를 꿈꾸며 모든 일을 깔끔하고 완벽하게 마무리 한다는 것, 또 널리 알려지기보다 실력으로 승부하며 하루하루에 충실하겠다는 것 등 헤인과 부흥건설은 여러모로 닮았기 때문이다. 이런 우연 아닌 필연의 연이기에 헤인과 부흥건설의 미래는 더욱 탄탄하고 밝아 보인다. 그 단단한 믿음으로 희망차 보인다.



# 최고의 성능과 서비스로 승부한다, 세왕기계

치열한 경쟁으로 어느 곳보다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변화의 현장 인천. 때문에 유연한 대응력과 쉽게 휩쓸리지 않는 꿋꿋한 신조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캐터필라의 우수함을 바탕으로 불황을 지혜롭게 견디고, 묵묵한 성실함으로 고객의 믿음을 탄탄히 이어가는 세왕기계의 행보는 그래서 더 믿음직하다.

글 임춘재 · 사진 이승혁



자신감 넘치는 세왕기계 함일찬 사장의 파이팅

우리나라 제2의 항구도시이자 제1의 공업도시, 인천. 그 중에서도 인천 연안부두는 서해안에 흩어져 있는 크고 작은 150여 개의 섬들과 주변해역을 이어주는 교통의 요지로 인천의 관문이며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때문에 이곳은 어느 곳보다 치열한 경쟁과 발 빠른 변화의 움직임으로 분주하다. 선박엔진 시장 또한 예외는 아니어서 커민스, GM, 미쓰비시, 대우 등 이름만으로도 쟁쟁한 대표 브랜드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게다가 유동 인구가 많고 입소문도 빨라 자칫 작은 실수는 브랜드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고착화시키기도 한다. 이런 치열한 현장에서 선박엔진계의 터줏대감으로 탄탄히 자리매김한 세왕기계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 서비스가 다른 그 곳

세왕기계 함일찬 사장이 선박엔진업을 시작한 것은 88년, 헤인 협력업체로 인연을 맺은 것은 93년이였다. 당시만 해도 협력업체로 발탁되기까지는 몇몇 까다로운 조건들이 필요했지만, 기술력과 성실함으로 이미 지역에서 인정받고 있던 함 사장에게는 그리 어려운 난관이 아니었다. 헤인의 전국 세 번째 선박엔진 대리점(AMD : Authorized Marine

Dealer)이 된 세왕기계는 현재 총 100여 평 규모에 관공선 10척, 어선 50척, 개인 및 법인 어선 20척 등 약 80척을 관리하며 캐터필라 엔진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서비스 권역은 평택부터 강화, 화성지역, 고작(?) 동선이 110km 거리 여서 더 세심한 관리와 서비스에 유리하다고 함 사장은 말한다.

“인천 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서 부품에 손상이 많아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게다가 조업을 나갈 수 있는 때가 밀물 때와 썰물 때, 하루 딱 두 번이기 때문에 엔진을 제때 수리해주지 않으면 바로 조업을 망치게 되죠. 그래서 서비스 요청이 있으면 시간에 관계없이 바로 나가 수리를 해줍니다. 때문에 엔진을 선택할 때에는 강하고 잔고장 없는 성능을 최우선으로 꼽습니다. 헤인의 캐터필라 엔진이 최고로 인정받는 것도 이 때문이죠.”

## 성능과 사람이 경쟁력이다

물론 처음부터 탄탄대로는 아니었다. 입소문도 빠르고 편견도 강했던 지역특성 탓에 고가 엔진이라는 초기 인식은 영업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하지만 조수간만이 심한 서해안의 특성상 타사 엔진들이 3년이면 수리를 받아야하던 것과 달리 헤인의 캐터필라 선박엔진의 내구성은 6년. 한번 캐터필라를 써보았거나 장기적으로 써본 사람들은 그 우수성에 감탄했고, 줄곧 캐터필라만을 고집하였다. 또한 항공화물이 제일 처음 도착하는 인천이라는 이점과 그 부품 수급 지점(인천지점)과의 거리도 고작 5km 라는, 가장 최단거리에 위치한 업체로서의 장점은 AS에서도 독보적인 신속성을 갖추게 하였다. 여기에 헤인 직원들의 발 빠른 응대는 100%의 서비스 만족도를 끌어냈다.

또한 사람을 무엇보다 소중히 생각하는 김 사장의 평소 신조는 캐터필라의 성능에 이은 세왕기계



친근한 동료같은 함일찬 사장(좌)과 (주)헤인 정경환 과장(우)

의 또 다른 성장 비결이다. 본디 자사 직원들에게도 강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요구하는 한편, 개인적인 어려움을 세심히 배려하는 등 인간적인 유대를 중시했는데, 이는 비단 ‘세왕기계 식구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민감한 경쟁관계에 있는 타사 업체들과도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친목계를 만들고, 그 임원으로써 활발히 활동하며 과열 경쟁 없는 시장을 만들기 위해 주력하고 있었다. 자연히 성능과 사람 좋은 믿음, 최고의 서비스라는 칭찬이 세왕기계의 대명사처럼 따라다녔다.

최근 불황을 타고 어느 때보다 부진한 엔진판매 시장. 세왕기계 또한 판매 보다는 수리 쪽의 업무가 상대적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어려움이며 그간 쌓아온 믿음과 탄탄한 기반으로 아직까지 별 무리 없다고 함 사장은 자신 있게 말한다. 지금의 불황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기간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 기간이라는 것이다. 그의 말처럼 자사 직원을 가족처럼 아끼고, 타사 업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고객들에게는 100% 만족을 주기 위해 뛰는 세왕기계의 서비스 정신은 캐터필라의 최고 성능과 만나 이룬 오늘의 성과를 내일에도 고스란히 재현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BAUMA CHINA 2004



(주)헤인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상해에서 개최된 'BAUMA CHINA 2004'에 참가하였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국내업체 및 직접 현장을 방문한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당사의 취급품목 및 지원체제에 대한 판촉활동을 벌여 행사기간 동안 약 150명의 잠재고객을 유치하는 성과를 올렸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전 세계 600여 개의 중장비 관련 업체가 참가하여(국내에서는 32개 업체 참가)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의 면모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일신중기, (주)헤인 서비스협력업체 인증



(주)헤인은 지난 2004년 11월 24일 경기도 발안에 위치한 일신중기를 '서비스협력업체'로 지정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협력업체 지정을 통하여 (주)헤인은 향후 서울/경기 지역의 고객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비스협력업체' 지정은 (주)헤인에서 각 업체의 서비스 능력 등을 다양한 기준에 의해 면밀히 검토한 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서비스협력업체'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해 (주)헤인의 고객만족도를 향상시켜나갈 예정이다.

## Ingersoll-Rand 콤푸레셔 웨지(Wedge)시스템 교육 실시



지난 10월 12일과 13일 양일간 (주)헤인 잉카솔랜드 장비영업팀에서는 2004년 하반기부터 VHP750WCAT모델에 적용되어 국내 판매를 시작한 Ingersoll-Rand 콤푸레셔의 웨지(Wedge) 시스템에 대한 이론 강의 및 현장 장비 실습을 천안공장에서 실시하였다. 이날의 강의는 잉카솔랜드 장비영업팀과 서비스 직원 그리고 Ingersoll-Rand Korea에서 이 시스템을 교육받기 위하여 서비스 직원 2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또한 이날의 강의를 위하여 Ingersoll-Rand사의 Field Service Technician인 Mr. Eddie McDaniel과 Mr. John Placke이 직접 한국에 방문하여 강의와 현장 실습을 진행했고, 서비스 직원들과의 토론을 통해 서로 간 장비 서비스의 노하우를 주고받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헤인기술자격시험

글\_안민홍 (인력개발팀 팀장, 건설기계 기술사, mhahn@haein.com)



1983년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는 헤인기술자격시험은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소정의 정비지식과 기능을 숙달한 자에게 기술자격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수한 기술자를 확보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고객만족 및 회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사보를 통해 최근 변화된 내용 등 헤인기술자격시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엔진, 동력전달, 전기 및 유압의 4개 분야로 이루어진 헤인기술자격시험은 2급 및 1급 자격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2005년부터는 새로 이 장비전기분야가 추가될 예정이다.

2급 자격 분야의 응시 자격은 헤인에서 기술직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입사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1급 자격은 2급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자로 각각 해당 부서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진다. 각 자격 분야는 이론과 실기로 구분되어 실시되는데, 이론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실기 시험을 실시한다.



2급의 이론 시험은 작동이론(50%), 기술영어(20%), SIS, PTSBK, ET(10%) 및 AFA(10%) 등으로 구성되며, 1급은 영어(SM, SL, SI)(30%), PC 활용(SIS, SIRS, ET, TMI)(30%) 및 기술이론(AFA, 전자식엔진/장비)(40%) 등으로 이루어진다. 2급 분야의 실기 시험은 해당 분야 구성품의 분해, 조립 및 측정 등의 실기를 원칙으로 시행되며, 1급은 전자식 엔진/장비의 고장진단에 대한 실기를 원칙으로 시행된다.

이 시험에 최종 합격한 직원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수여되며, 매달 각 분야에 대해 각각 4만 원(2급) 및 8만 원(1급)의 자격 수당이 지급됨과 아울러 승진 심사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헤인에는 42명(중복 소유자 포함)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1급 분야로의 시험 응시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헤인의 자격시험 제도는 2000년 2월 10일자로 노동부로부터 사업 내 자격검정으로 인정되어 그 공신력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 독자나눔터

첫 사보 잘 받아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캐터필라 정비아말로 충분히 짝사랑하게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각 장비에 대한 변천사 및 응급처치 요령을 담았으면 합니다. 첫 사보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 2동 솔빛주공 113-1403 윤근수

매월 어김없이 날아오는 헤인 사보를 볼 때면 늘 한결 같은 마음으로 제 자신이 헤인 직원이 된 것처럼 반갑습니다. 또 힘든 현장에서 묵묵히 땀방울을 흘리는 사진을 볼 때면 가슴이 찡을 찡니다. 잠시 짬을 내어 기분전환할 때 펼쳐보는 헤인 사보가 있기에 늘 힘을 얻고 더 알찬 내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어 즐겁습니다. 헤인 화이팅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631 (주)선화아스콘 금광현

모두들 '힘들다, 힘들다' 라고 말하는 요즘. 얼핏 헤인 사보를 보고 새삼 느낀 점은 우리 모두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힘든 세상을 살고 있는 여러분! 모두들 '파이팅' 합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죽전동 273-17 동영환경 (주) 박창민

로켓을 쏘아올리고 싶을 만큼 푸른 하늘이 몽글몽글 송편 빛듯 구름을 만들어 내고 있는 가을입니다. 산들은 저마다의 아름다움을 뽐내듯 뜨거운 열기로 낙엽을 불사르고, 얼른 배낭을 둘러메고 산사람이 되어 보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짓 없이 진실만을 보여주는 자연에게서 다시금 형언할 수 있는 삶의 진리를 하나 더해봅니다. 자연을 닮은 헤인!!! 자연을 닮고 싶어 하는 우리 모두 파이팅!!!!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1동 432-37 8동6반 김현아

비즈니스 심리학을 항상 탐독하는 애독자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울 때 경제 상식 면에서부터 직장생활을 하는데까지 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좋은 글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충북 충주시 문화동 중앙현대 APT 101-204호 신길용

## 임직원 소식

### 결혼을 축하합니다.

정비기술팀 2004.10.23 홍성구 사원

금융무역팀 2004.11.24 이관영 사원

육상엔진팀 2004.12.12 황정욱 사원

### 자녀 출생을 축하합니다.

서울영업본부 2004.07.05 김선영 사원 (최정빈)

부산영업본부 2004.10.07 강영훈 대리 (강경민)

동해지점 2004.10.21 김홍수 과장 (김민호)

산업정비영업팀 2004.12.15 이진호 과장

엽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첨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문의 : 이승일 과장(silee@haein.com) 02-3498-4524

## 비즈니스 심리학

# 마음을 비우는 과감한 청소

글\_하지현, 『통쾌한 비즈니스 심리학』 저자



**점**점 더 멀어져간다. 내뿜는 담배연기처럼. 작기만 한 내 기억 속에 무얼 채워 살고 있는자...

유상 씨가 요즘 자주 듣는 노래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다. 유상씨는 서른이 넘는지 어언 삼 년이 지나 이제 곧 삼십대 중반을 바라볼 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가슴에 팍팍 와 닿는 이유는 노랫말 때문이다. 회사생활 육칠 년차가 되면서 어느덧 회사사람이 되고, 결혼해 아이도 낳고 나니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꿈과 이상은 담배연기처럼 '점점 더 멀어져만' 가 더 이상 따라잡거나 쫓아가는 건 무리일 듯 싶다.

과연 도대체 내가 지금 왜 일을 하고, 무슨 의미를 갖고 율해를 보냈는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낼 때에는 잊고 있던 이런 문제들은 연말이면, 특히 연봉협상을 위해 냉정한 업적평가의 자리에 서면 나 자신의 초라함과 함께 밀려오게 된다. 송년회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의 유학이나 자격증 취득과 같은 달라진 소식들을 듣게 되면 '나만 변하지 않고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감과 좌절감은 더욱 커진다.

사람은 자신의 이상(理想)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크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울함과 좌절감을 크게 경험하게 된다. 유상 씨도 그렇다. 회사생활의 의미도 찾기 힘들고, 또 회사 속의 나와 지금의 내 모습 사이에 일치감을 찾기 어려

워한다. 그러니 만족감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그렇게 답답하면 다 때려치우고 훌쩍 떠나버려!' 라는 대책 없는 환상을 가져보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당의정은 당의정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 유상 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게 멀어져 가고, 쫓아가기 어려울 거라 여기는 두려움, 왠지 모를 버거움과 무거움은 내 마음속이 사실은 쓸모없는 잡동사니들로 가득 차서 덜거덕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탄만 하고 있기보다 먼저 내 마음속을 비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이 답답함과 버거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한없는 정보의 압박 속에서 정신없이 일상을 보내며 차올라있는 수많은 마음속의 찌꺼기를 비워야 한다. 컴퓨터가 이유 없이 느려질 때 새로 컴퓨터를 장만하는 것보다는 쓸모없는 프로그램이나 파일을 지우고, 레지스트리를 청소하는 것만으로도 성능이 좋아지는 것과 같다. 연말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현대인에게 중요한 것은 그 채워진 것을 비우는 과감한 청소다. 그런 청소를 통해 말끔히 비워놓고 나야 새해를 맞이하면서 작년의 찢찢한 기억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온전히 '나로서 나'를 받아들이며 진정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서른 즈음에'를 좀 더 들여보자.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줄 알았는데 비워가는 내 가슴속에 더



좋은 글씨

다시 떠나는 날

깊은 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은 물고기처럼

힘한 기슭에 꽃 피우길 무서워하지 않은 꽃처럼

길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개짓 멈추지 않은 새들처럼

그대 절망케 한 것들을 두려워 하지만은 아니기로

꿈쩍 않는 저 절벽에 강한 웃음 하나 던져 두기로

산맥 앞에서 바람 앞에서 끝내 멈추지 않기로.

!도종환의 <다시 떠나는 날>을 소개합니다.



2 0 0 4

W I N T E R

애 독 자 카 드

●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하여 서로 다른 5곳을 찾아 표시해 주세요. 보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독자나눔터의 신고 싶은 사연을 자유롭게 적어 보내주세요.

우 편 엽 서

보 내 는 사 람

\_\_\_\_\_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유효기간  
2003.7.15~2005.7.14  
서울시서초우체국  
승인 제1823호

(주)헤인 사보편집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

1 3 7 - 1 3 0